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허 정 선

경북대학교 이공대학 섬유패션디자인학부 부교수

요 약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hybrid) 이미지들을 연구하기 위해, 현대미술에 표현된 신체미술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범주의 인간들이 지나는 몸에 대한 주관적 관찰들을 담고 있으며 억압된 몸, 소외된 몸, 변형된 몸 등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들을 분류 해 본 결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첫째, 사실적인 신체이미지들이 의상에 직접적으로 차용된 유형으로써, 에로티시즘의 표현과 함께 의상과 신체의 경계가 허물어진 양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상의 사물들이 의상과 함께 혼합적으로 섞여 표현된 양상으로써,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의상에 도입되어 기존의 전형적인 의상 소재에서 벗어났다. 셋째, 동물의 특징적인 이미지들이 의상 전체에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디자인들로 나타났다. 넷째, 테크놀로지와 접목된 신체이미지들로서, 다양한 영상이나, 기계적 움직임에 의상에 도입하여 움직이는 신체, 변하는 의상이미지들로 나타남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이미지들을 신체와 결합시켜 혼성적 이미지를 형성한 의상들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들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몸, 하이브리드, 이미지, 현대 패션

I. 서론

오늘날 모든 장르의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체미술의 다양한 표현양식들로 인해 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진 가운데, 현대 패션에서도 예술적 표현이 극대화되면서 몸을 매체로 하여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재료와 이미지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연적인 인체의 실루엣을 강조하고, 여성미의 이상적인 비례와 구조를 표현하던 유형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소재들의 도입과 신체미와 부합하지 않는 재료들을 혼용하여 사회비판적 이미지를 도출해 낸 혼성의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패션에 등장하는 의상의 유형들이 기존의 이상적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이 탈신체화되어 왜곡되며, 다양한 소재의 표현 현상이 나타난 작품 중 혼성적 이미지가 강조된 작품만을 선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에서 신체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신체를 보는 사회문화학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 현대 패션과의 비교를 위해 현대 미술에 표현된 신체미술에서는 혼성적 이미지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작품사례를 통해 다양한 유형과 이미지들에 대해서 고찰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패션에 표현된 다양한 여성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패션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 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에 따라 신체의 혼성적 표현 유형들이 어떻게 분류되며 해석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장르의 혼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패션이 어떤 하나의 양식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 없고, 사회문화적인 현상인 하이브리드 경향을 통해서 해석해 봄으로써 현대 패션의 혼성적 이미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대 패션의 담론인 탈신체화, 탈의상화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혼성(hybrid)의 정의 및 개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혼성’이라는 용어는 각 분야에서 한글보다는 영어를 그대로 표기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문화,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컴퓨터, 하이브리드 동력,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채권, 하이브리드 위성 등의 전문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먼저 혼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 또는 섞여서 만듦’¹⁾이라고 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잡종, 혼성체, 혼합물의 의미를 지닌 하이브리드²⁾로 표현되어 진다.

용어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섞인 것으로 이종(異種), 혼합, 혼성, 혼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이종을 결합,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엇인가(시장이나 영역 등)를 창조하는 통합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휴대폰에 전화통화 기능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카메라, MP3 기능 등을 섞어 휴대폰 가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양성과 다원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반대 의견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 통합하는 하이브리드적 접근방식이 정치·사회적 통합 코드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³⁾ 라고 되어 있다.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 “하이브리드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을 말한다”⁴⁾ 라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혼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과학기

술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료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의 물건이나 상품으로서 기능하던 것들이 하나의 제품에 혼합되어 제작된 것을 일컫는다.

현대미술 역시 작가들이 표현을 극대화시키고자, 가시적 효과를 높여 나타내고자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소재와 재료, 이미지들을 혼합시킨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패션에서도 신체의 공간과 의상의 공간에 한가지의 소재나 재료로 표현면을 단순화하고 간결화 시킨 이미지에서 점점 벗어나 의상에 사용되어질 수 없었던 다른 재료와 소재들을 혼합시키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혼성’의 이미지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패션의 혼성적 이미지는 복합적인 구조와 혼용되어진 컨셉과 소재, 재료와 표현방식들로 인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내적으로 함축되어 있고,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은유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서 관람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유추해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신체의 혼성에 관한 담론

본 연구에서의 신체미술과 현대패션 두 장르 모두 몸이라는 공간 내에서 표현되는 예술양식으로서, 신체공간에서의 혼성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몸 위에, 의상의 표현면 위에 뒤섞여 표현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탈중심화, 탈 장르화 현상의 반영으로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방가르드적 표현 양상으로 새로운 신체공간을 창조한다.

현대의 모든 예술은 신체에 대한 언급 없이는 이해 될 수 없고 인간의 몸은 모든 사회와 문화 내에서 옷이 입혀져 왔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관계

에 대한 논리적 분석들이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패션아트를 비롯한 최근의 복합적 신체 양상을 포출하는 영역의 모호한 기준과 정체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위해서 본 장에서는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적 차이를 없애면서, 신체를 ‘욕망이 작동하는 장이자 의미의 흐름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으로 인식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기관없는 신체’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들뢰즈에게 신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체는 “욕망하는 기계가 작동하고 의미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장”이다. 여기서 들뢰즈가 욕망을 기계라고 칭하는 것은 육체의 모든 기관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체계에 예측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절단되었다가 접속되고 분열되면서 생산하는 자유로운 기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⁶⁾

따라서 신체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요소들을 집합시킴으로서 단지 유기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속성을 갖는 물질적 흐름들, 요소들이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 신체를 변용시키는 힘들인 연속적인 강도들이 흐르면서 일정한 배치를 이루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철학, 예술적 집합체들 모두를 포함한다.⁷⁾

이렇듯 오늘날의 신체는 정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체 외에도 소외의 미와 정체성의 재발견,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맞춰갈 수 있는 남과 다른 새로운 신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론들에 의해서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재조립된 신체는 새롭게 신체미술이라는 장르를 형성하였으며 현대 미술 속에 한 장르로써 인정받으며 해석되어지고 있다.

3. 현대미술에 나타난 혼성적 이미지

20세기 들어 현대미술에서는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한 많은 작업이 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몸은 생물학적 관점의 숭고함이나 이상적인 신체의 미를 창출하기 위한 장을 초월하여 인간의 정신적 내면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져오고 있다.

현대미술에서의 신체는, 20세기 후반 몸을 표현하는 작품들에는 19세기의 격조 높은 인물상을 거부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몸들에 몰입하는 가운데, 다양한 범주의 인간들이 지니는 몸에 대한 객관적 관찰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억압되고 소외되고 숨겨야만 했던 몸의 힘을 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나타난 몸은 어렴풋한 잠재적 힘과 내부의 욕망과 꿈, 환상들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다. 몸이 수천 개의 조각과 파편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불확실한 감각이나 사지를 찢는 것, 몸을 해체되고 부서질 수 있는 사물들과 동일시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다음에서는 들뢰즈의 논의를 바탕으로, 베이컨의 작품에서 보이는 신체의 변형과 조각의 사례와 초현실주의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이란 지각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생성되는 것을 사유하는 하나의 방법은 동물-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물-되기는 동물처럼 생성하기, 혹은 동물이기 그리고 인간의 영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동물-되기(becoming)이지 동물이기(being)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혼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동물이나 인간도 아닌 ‘횡단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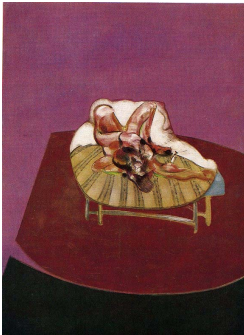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과 레오나르도 크레모니니(Leonardo Cremonini)의 기형적이고 절단된 신체 등도 심리적 법칙과 그 법칙에 따른 환경과 신체와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특

히 들뢰즈가 논한 바 있는 베이컨의 회화의 경우, 벌거벗은 몸이 마치 고기 덩어리처럼 비틀어지거나 깃이겨진 형태로 묘사되어 극도로 불안전하고 비극적인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 그 속에서는 신의 피조물로 간주되어온 인간의 숭고한 존엄성이나 고귀함 따위는 완전히 상실되어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참상을 통해 기존에 탄탄해 보이던 현실 사회가 얼마나 모순되고 피폐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자각함으로써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베이컨의 그림 속에는 변형된 인간, 즉 기관 없는 신체가 된 하나의 형상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뒤엉켜 무엇이 인간의 형태이고 무엇이 동물의 형태인지를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상도 등장한다. 『주사기를 꼽고 누어있는 사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동물의 형태로 묘사된다<그림 1>.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양상에 대해서 후기 현대사회 이론가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부수기는 요즘보다 격식화된 말로 불린다. 예컨대 해체, 탈(脫)중심, 소멸, 탈(脫)신비화, 비(非)연속, 차이 등의 용어들은 전통적인 완전한 주체, 서구 철학의 이성적인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인 거부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그것은 또한 단편이나 파편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¹⁰⁾고 분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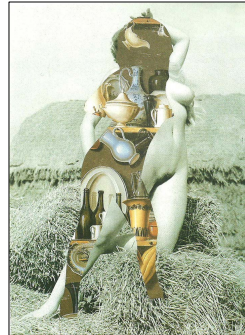
또한 신체미술은 꿈속에서나 보일 것 같은 형상이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신체이미지들을 생산해 내었는데 이는 대상과 몸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서 나왔다. 대상과 몸 사이의 새 관계는 반인반수 같이 생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작품 『Untitled #307』은 파편화된 신체를 표현한 대표적 작품으로써 개인적인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스테레오 타입이나 변장이 아닌, 여성성의 악마적인 논리, 즉 공포와 두려움의 심리적인 테러 영역으로서 여성성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신디 셔



<그림 1> 『누어있는 사람』, 프란시스 베이컨, 1963 (출처: 『20세기 미술의 모험』, 1990, p.604)



<그림 2> 『Untitled #307』, 신디 셔먼, 1994 (출처: 『Looking at Fashion』, 1996, p.367)



<그림 3> 『무제』, 존 스티제이커, 1990 (출처: 『몸』, 1996, p.407)



<그림 4> 『Zygotic Exposure 1』, 제이크 & 디노스 채프먼, 1996 (출처: 『Looking at Fashion』, 1996, p.340)

면이 드러내는 여성의 몸은 사회적 여성성의 스테레오 타입에 근접되고 흡수되기보다는 스테레오 타입 아래에서 해체되거나 형태가 없는 몸이 된다<그림 2>.¹¹⁾

존 스티제이커(John Stezaker)의 작품 『무제』는 각종 생활용품들을 화면위에 인체와 콜라주한 작품으로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나체의 몸 위에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일상 사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

제이크와 디노스 채프먼(Jake & Dinos Chapman)은 자신들의 일련의 작품들 『Zygotic Exposure』 시리즈에서 신체를 마음대로 절단하고 분해한 후 다시 접속시키는 일련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유전자 변형 및 기형아 출산 등 사회문화적인 이슈들을 통해 정체성 문제를 심도 있게 표현하고 신체의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조각하고 있다<그림 4>.

이러한 후기 현대사회의 예술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절단과 분해, 해체 등을 통해 파편적으로 변형된 몸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 단일하지 않다. 이는 보드리야르가 지적한 바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형되는 현대사회의 양상을 대변해준다. 현대의 신체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변하는 환경적 신체로서, 즉 이전의 죽은 신체에 대해 또는 해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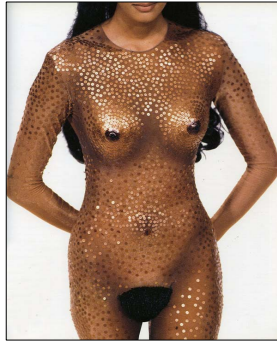
적 신체에 대해 신체를 통과하는 격렬한 감각과 인상이 부딪히며 변화하는 하나의 장(場)으로서, 변화하는 미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²⁾

따라서 몸과 정신의 이중적인 성격의 통합이 기획된 후기 현대사회에서는 심지어 의상을 이용해 인간의 욕망, 죽음, 젠더, 정체성, 성적 쾌락 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¹³⁾

III. 의상에 표현된 혼성적 이미지의 유형 분석

1. 사실적인 신체의 재현적 이미지

마릴린 혼(Marilyn J. Hom)은 의복을 ‘제2의 피부’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몸을 감싸는 의복의 기능과 역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복이 신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의상들은 신체를 감싸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몸을 더 드러내는 의상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Jean Paul Gaultier, 1993년 S/S.
(출처: 『Jean Paul Gaultier』, 2000, p.109)



<그림 6> 『The Immortal Human Tailor』,
알바 두르바노, 1995-1997 (출처: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 2002,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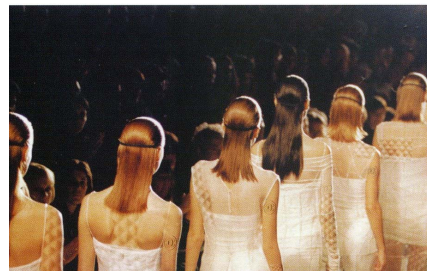
여성의 사실적인 몸의 형태와 에로틱한 이미지들이 의상 위에 그대로 재현된 유행으로써 표현된 신체와 그 의상은 외부에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몸 그 자체가 되었고, 몸 이미지들이 관객들과 고객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키며 소비되었다. 몸을 가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누드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급격히 변화되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1993년 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원피스드레스는 가려져야 할 몸이 의상과 함께 드러나 있는데 몸과 의상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의상의 역할이 부재되어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성의 감춰야 하는 부분이 부각되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피부색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진짜처럼 묘사된 스펅글 의상을 입고 있지만 벗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사실적으로 몸이 드러난 이미지는 에로티시즘의 부각과 함께 여성의 몸이 노출되어지는 시대상황적 배경에서 등장한 의상이다 <그림 5>.

몸의 이미지와 의상이 재현적으로 작품에 등장한 예로서, 알바 두르바노(Alba D'Urbano)의 『The Immortal Human Tailor』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의상 위에 노골적이고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여성인체는

몸과 의상을 역설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인체를 가리는 옷의 기능이 사라지고 옷을 입고도 인체를 완전히 드러내며, 옷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그림 6>.

샤넬의 디자이너 칼라 머레이(Carla Murray)와 피터 알렌(Peter Allen)의 『Skinthetic』 시리즈는 미래에 있을법한 ‘implant and explant’ 제품을 제안한 것으로서 인공적인 물질을 사람 몸에 심거나 생체 일부를 외식(外植)하는 샤넬의 브랜드 정체성인 전형적인 쿨트를 인간의 몸 위에 적용시킨 의상위의 피부는 몸 위의 피부와 연관된다.¹⁴⁾ 미래에는 피부와 옷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 피부가 옷에 이식되기도 하고 피부에 옷을 이식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컬렉션에 발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림 7>.



<그림 7> 『Skinthetic』, Chanel, 칼라 머레이 & 피터 알렌, 2001 (출처: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 2002, p.93)

2. 일상사물과의 혼성적 이미지

후기 현대의 패션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작품들로는, 서로 이질적인 오브제나 다양한 소재들을 한데 결합시켜 놓은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이질적인 오브제나 모티프들을 조합한 패션은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은 인간의 확장에 대해 다루면서 신체의 확장 개념으로 의복을 정의하였는데, ‘피부의 확장’으로서의 의복을 열 제어 메커니즘으로뿐만 아니라 자아를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신체 외면의 보다 직접적인 확장이라고 하였다.¹⁵⁾ 이처럼 의상은 인간의 신체를 기저로 하여 형성되는 존재로서 시각적이면서도 또한 촉각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일상사물과의 혼합적 이미지는 혼성의 신체공간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형분류 중 하나로서 일상사물이 직접 의상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용품들의 재료나 부속물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의상에 도입되어 기존의 전형적인 의상 이미지를 대신하는 위치에 놓이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작품으로는 다양한 재료들과 소재들로 구성되어진 라니 하트(Lannie Hart)의 『Winged Victory』(1976)를 들 수 있다. 빛바랜 가족사진과 유리로 제작된 날개의 형상들과 다양한 오브제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작업들은 의상의 신체공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그림 8>.

요지 야마모토 (Yohji Yamamoto)의 『Vest, Skirt』는 이젤의 파편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화하는 파편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재료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파편화된 의상의 단면과 구조를 해체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신체 공간이 일련의 미술작품의 재료이자 표현의 공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고수케 추무라(Kosuke Tsumura)는 『Final Home』을 통해서 20세기 말 지구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일론으로 된 코트를 제작하였는데, 40개가 넘는 주머니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을 휴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¹⁶⁾ 생활용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시킨 작품으로서 다양한 재료들이 의복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점퍼는 잘 투과되어 속이 보이는 소재를 사용하고 일상의 물건들을 잘 배치



<그림 8> 『Winged Victory』, 라니 하트, 1976
(출처: 『Art to Wear』, 1986, p.122)



<그림 9> 『Vest, Skirt』, Yohji Yamamoto, 1991년 A/W
(출처: 『Visions of the body』, 1999, p.53)



<그림 10> 『Final Home』, 고수케 추무라, 1994 (출처: 『Fashion』, 2002, p.706)



<그림 11> 『After words』, Hussein Chalayan, 2000년 A/W
(출처: 『Hussein Chalayan』, 2000, p.65)

하였고,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그림 10>.

사물과의 혼성적 신체공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 작가라 할 수 있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시대상황에 적절한 소재와 표현형식으로 신체를 대중적 메시지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After words』(2000)의 신체공간은 키프로스에서 성장한 살라얀의 어릴 적 경험이 자신의 작품에 이입되었다. 코소보(Kosovo) 전쟁을 은유화한 것으로 전쟁 중에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 상상했다. 즉, 자신의 소유물들을 숨기고 그들의 집을 떠나는 것에 관한 것이다.¹⁷⁾ 테이블과 의자는 스코틀랜드 제품디자이너 폴 토펜(Paul Topen)이 만든 것으로 살라얀은 ‘이동식 건축(portable architecture)’으로서 패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도시의 유목생활(urban nomadism)의 아이디어를 야기시켰다.¹⁸⁾ 이는 들뢰즈의 유목적 주체로서의 신체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림 11>.

단순히 여러 종류의 모티프나 오브제들을 여기 저기서 끌어 모아 한데 결합시켜 하나의 혼성적 이

미지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 결과 드러나는 신체 이미지들 역시 특정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들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3. 동물이미지와 혼성적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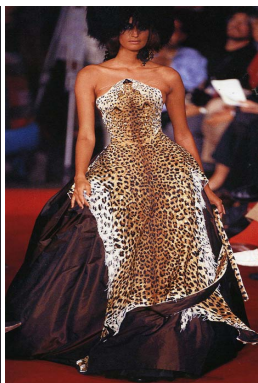
의상에 동물과의 혼성적 이미지들을 차용한 작품들이 여기에 분류되는데, 동물의 이미지가 그대로 의상에 표현되거나 동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일부분만이 의상의 부분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들뢰즈가 논한 바 있는 베이컨의 회화의 경우처럼, 별거벗은 몸이 마치 고기 덩어리처럼 비틀어져 동물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극도로 불안정하고 비극적인 감정이 표출되어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아함 따위가 상실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동물의 특징적인 색채와 형상들을 가지고 ‘인간의 인간되기’가 아닌 ‘인간의 동물되기’를 패션 아트로 잘 해석해 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작품 『Sylvia ensemble』은 동물과의 혼성적 신체공간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 하겠다.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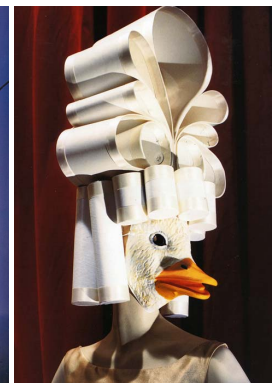
<그림 12> 『Sylvia ensemble』, Christian Dior, 2000 (출처: 『Fashion at the Edge』, 2003, p.53)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1997-8년 A/W (출처: 『Jean Paul Gaultier』, 2000, p.61)



<그림 14> Thierry Mugler, 1997년 S/S (출처: 『Thierry Mugler』, 1997, p.75)



<그림 15> Franco Moschino, 1996년 A/W (출처: 『MOSCHINO』, 2001, p.282)

의 혼돈을 야기시키기 위해 동물의 신체 일부와 인간의 신체 일부를 결합시킨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유머러스하게 신체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그림 12>.

틀뢰즈는 ‘인간’이란 지각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생성되는 것을 사유하는 하나의 방법은 동물-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¹⁹⁾ 하였다. 동물-되기는 동물처럼 생성하기, 혹은 동물이기 그리고 인간의 영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차이를 지각하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역능이다.²⁰⁾ 이것은 자신이 아닌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되거나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확장하려는 욕망에서 생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 폴 코티에의 호피이미지 드레스 역시, 동물의 사실적 이미지가 그대로 의상에 표현된 디자인으로써 한 마리의 표범이 드레스의 전면에 배치되어 신체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범이 가지는 동물적 특성을 인간의 몸에 적용시켜 둘의 특성을 믹스시켜ダイナ믹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혼성되었다<그림 13>.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의 나비이미지 드레스에서도 화려한 나비의 날개와 색채를 의상으로 가지고 온 작품으로서 컬러풀한 나비의 특징과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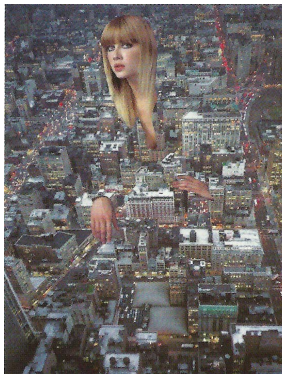
개의 형상을 극대화시켜 신체와 의상에 이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나비되기’ 프로젝트를 잘 표현해내고 있다<그림 14>.

프랑코 모스키노(Franco Moschino)의 오리모양 헤어장식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재미있는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오리의 머리만을 패션쇼에 차용하여 코믹하고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으로서 인간 주체가 사라지고 단지 동물의 객체로 전도되어지는 작품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4. 테크놀로지와 접목된 신체 이미지

오늘날 패션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날이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예술에서 장르의 파괴와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달로 다른 분야의 언어들과 합류하게 되면서 다양한 과학적 기술적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빅터 & 롤프(Victor & Rolf)의 2002년 F/W 컬렉션은 의상에 영화와 TV제작에 사용되는 블루스크린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가미시킨 작품으로서 신체공간의 일부를 제거시키고 도시의 풍경으로 대체시킨 작품이다.²¹⁾ 신체공간 주변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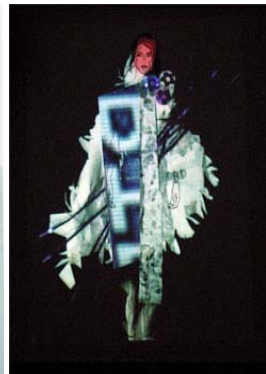
<그림 16> Victor & Rolf, 2002년 A/W (출처: 'Fashioning the Future', 2005, p.81)



<그림 17> 'Robot Couture Silver Cyborg Suit', Thierry Mugler, 1995년 F/W (출처: 'Extreme Beauty', 2002, p.84)



<그림 18> 'Aeroplane Dress', Hussein Chalayan, 2000년 S/S (출처: 'Hussein Chalayan', 2000, p.65)



<그림 19> 'Material/ization', 사이먼 소로굿, 2001 (출처: <http://www.simonthorogood.com>)

부적 환경으로 신체의 일부분이 흡수되어 은폐되는 작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성의 몸이 도시공간으로 변형되는 몸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6>.

티에리 뮈글리의 『Robot Couture Silver Cyborg Suit』는 미래 전사의 이미지를 새로운 테크노 소재와 잘 믹스시켜 표현함으로써 테크놀로지와 접목된 신체, 기계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인간의 모습을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있다<그림 17>.

살라얀은 일상의 사물들과 테크놀로지를 자주 의상에 도입시켰는데 패션디자인과 무관한 주제를 테크놀로지 소재들을 사용하여 패션과 연계시킴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그의 1999-2000년 F/W 『Echo Form』 컬렉션에서 발표된 『Aeroplane Dress』는 비행기 동체에서 영감을 얻어 플라스틱으로 구조해서 만든 드레스이다.²²⁾ 이 드레스는 변화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적인 작품으로서 의상의 부분 조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열리고 닫힌다<그림 18>.

사이몬 소로굿(Simon Thorogood)의 『Materialization』²³⁾ 전시는 'Lightdesk' 디자인 툴을 특징으로 하는 심플한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이다. 전시장의 바닥 한 가운데에는 소재, 형태, 패턴, 텍스트, 칼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선택되어지고, 작가의 의도 하에 만들어진 갖가지 형태의 구조물들이 조명 데스크 작업대 주위에 흩어져 놓여져 있으며, 이 형태들은 관객들이 단순하게 하든지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든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디자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작품이다<그림 19>.

IV. 혼성적 이미지의 의미와 상징성

단순히 여러 종류의 모티프나 오브제들을 여기 저기서 끌어 모아 한데 결합시켜 하나의 혼성적 이미지를 형성된 의상들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들

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여성의 몸은 시대에 따른 미의 기준에 따라 이상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왔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신체미를 창조해왔다. 본래 인간의 신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신체를 재현하거나 표현할 때에는 입는 사람, 또는 만드는 사람의 특수한 감각과 그 시대의 이상적 신체미가 추구되어 실제 신체는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현대미술에서의 신체는 인체가 새로운 재료로서 도구로서 재구성되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몸을 예술로 표현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몸과 함께 영상, 비디오, 테크놀로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몸, 아름다운 신체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매체가 갖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크게 부각되었다.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된 논점들과 혼성적 신체 이미지의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의상의 외부와의 신체확장과 내적 의미를 해석한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현대 패션의 혼성적 표현들은 기존 의상과 현대 패션의 정체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패션은 사회 속에서 정체성 표현과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표현방법들과 재료들을 의상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오늘날 여성의 신체는 결국 이상적인 의상과 의상을 벗어난 형태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 존재 의의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즉, 탈신체, 탈의상을 통해 의상의 형태와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체개념의 탈 다중성 문제로서, 현대 패션은 하나의 작품에서 하나의 해석을 이끌어내던 기존의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다원

적, 다의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호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작가와 디자이너, 관객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넷째, 단순히 의상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다양한 설치물들을 배치함으로써 미래적 이미지들을 표현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 시스템, 스크린과 라이트 박스, 디지털, 컴퓨터 사운드와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테크놀로지와의 접목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신체공간의 다양한 혼성적 표현양상은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 및 획일화되고 몰개성화되는 현상들, 물신주의의 소비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공간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들을 연구하기 위해, 현대미술에 표현된 신체미술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범주의 인간들이 지니는 몸에 대한 주관적 관찰들을 담고 있으며 억압된 몸, 소외된 몸, 변형된 몸 등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사실적인 몸 이미지들이 의상에 직접적으로 차용된 유형으로써 몸과 의상의 경계가 사라져 의상의 기능 중 하나인 정숙성문제에 혼돈을 표현해내고 있었다. 둘째, 일상사물들이 의상과 함께 섞여 혼성된 양상으로써, 산업사회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의상 소재와 재료들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물의 특징적인 이미지들이 의상 전체에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디자인들로 나타났다. 넷째, 테크놀로지와 접목된 신체이미지들

로서, 다양한 영상이나, 조명, 컴퓨터 시스템, 테크노 기술을 통해서 기계적 움직임이나 미래적 이미지의 의상을 표현하려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이미지와 재료들을 신체와 결합시켜 혼성적 이미지를 형성한 의상들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들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신체의 의미를 새롭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 비판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체의 담론들이 도출된 신체공간으로서의 의상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동아새국어사전 (2003). 서울: 두산동아출판사, p.2632.
- 2) 동아프라임영한사전 (1995). 서울: 동아출판사, p.1113.
- 3) 네이버 용어사전(검색어: 하이브리드), 자료검색일 2009. 12. 2. <http://terms.naver.com>
- 4) 위키백과(검색어: 하이브리드), 자료검색일 2009. 12. 2. <http://ko.wikipedia.org>
- 5) 허정선 (2004).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 6) 위의 논문, p.16.
- 7) 위의 논문, p.17.
- 8) Colebrook, C. (2002). 질 들뢰즈, 백민정 옮김 (2004). 서울: 태학사, p.218.
- 9) 이화여대, 한림미술관 편 (1999).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1-12.
- 10) 서성록 (1992).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미진사, p.62.
- 11) 이화여대, 한림미술관 편. 앞의 책, pp.84-85.
- 12) 위의 책, p.13.
- 13) 위의 책, pp.35-39.
- 14) Lupton, E. (2002).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p.93.
- 15) McLuhan, M. (1964).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이한우 옮김 (2002). 서울: 민음사, pp.179-180.
- 16)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 Fashion, Köln: Taschen, p.706.
- 17) Blanchard, T. (2000). 'Mind Over Material', The Observer Magazine, 24 September, p.41.
 - 18)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 Deathlines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285-288.
 - 19) Colebrook, C. 앞의 책, p.218.
 - 20) Deleuze, G. & Guattari, F. (1980).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assumi, B. trans (198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243.
 - 21) Lee, S. (2005). Fashioning the Future, London: Thames & Hudson, p.81.
 - 22)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London: V&A Publications, p.120.
 - 23) Vienna에 있는 Unit-f에서 2001년 5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린 전시회

A Study on the Female Body's Hybrid Images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Huh, Jung Su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hybrid images of the human body represented in the modern fashion, different forms of Body Art in the contemporary art were carefully examined. As a result of subjective observations, images as: the suppressed body, the alienated body, and the distorted body were often found. Hybrid images of the human bod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may be categorized into four. First, body image represents eroticism which blends the human body with clothes and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the human body and clothes. In the second hybrid image, everyday objects were incorporated into clothes and re-created into unconventional costumes. Third, images of animals were used in costumes in whole or by part, and resulted in the obscure animalistic designs. Fourth is a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the human body, which integrate media arts and mechanical movements into clothes and the human body. As a result, the hybrid images in fashion may be interpreted into as many different ways as possible rather than be defined alone as a single specific meaning.

Key words: body, hybrid, image, contemporary fashion